

2012 한글 일일달력전

366개의 독특한 시선으로 본 2012년

1년 365일, 작가의 독특한 감성을 담은 '2012한글일일달력전'이 지난 1월 29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한글이야기 전시실에서 열렸다. 캘리그래피디자인 그룹 어울림과 소다프린트가 주최하고 세종문화회관, 기프트, 사단법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 협회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한글학회 김종택 회장,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박종국 회장,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여태명 회장을 비롯 텔런트 권해효, 오윤아, 가수 유열씨 등 초대 작가 66명과 어울림 회원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쇄업계에서는 성도GL 김상래 대표, 해인기획 류명식 대표가 일반회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1년 366일을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하여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뛰어난 언어인 한글이 가진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우수성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작가들의 독특한 감성을 통해 표현했다. 특히,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은 어떤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되었는지를 찾아보고자하는 관람객들의 관심이 많았다.

이번 전시기간 동안에는 2012년 임진년에 걸맞게 특별하게 제작된 용 전시물에 자신의 소원을 종이에 써서 붙일 수 있는 2012년 소원쓰기 이벤트가 열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12월 25일, 1월 1일, 1월 24일에는 어울림 작가들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한글 이름 써주기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제지, 두성종이 등이 종이를 협찬하기도 했다.

2012한글일일달력전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한글이 갖고 있는 뛰어난 표현력과 우수한 형상미를 일상생활의 한부분인 달력, 그것도 일일 달력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소수의 작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넓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전시기간동안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재미있다, 기발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기의 생일이나 특정한 기념일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초등학생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저마다의 독특한 발상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흥미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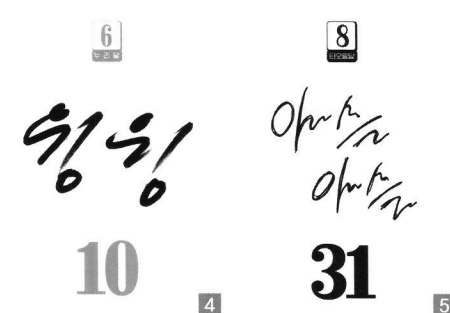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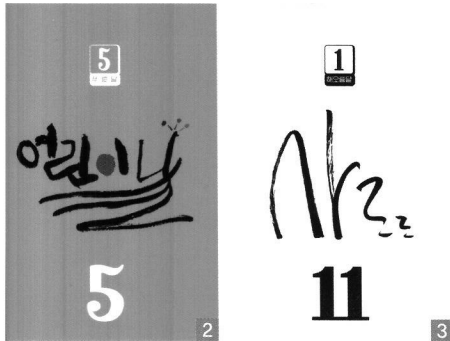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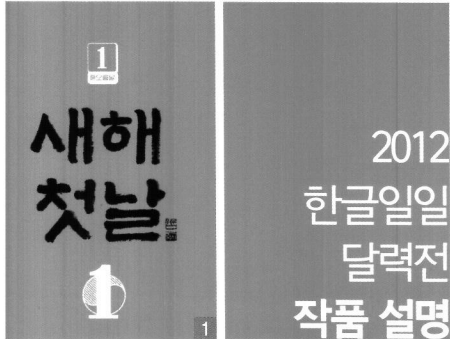
어떻게 세종문화회관에 전시하게 되었는가?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한글일일 달력전을 열었는데, 기획의도 및 대중적인 호응도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초청을 받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초청을 받아 전시회를 열게 되었으며 관람객들의 호응도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미니인터뷰



디자인 스튜디오 이괄림 이승환 대표



1. 1월 1일 (새해 첫날) - 새해의 첫날을 명절로 이르는 말

작품제작의도 첫아이의 첫음음 같이, 새벽을 깨우는 첫달걀같이, 새봄을 틔우는 새싹같이, 새해 첫날은 기쁘고 희망찬 날이다.

작가 소개 박종국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은 국어학자, 교육자로 일평생 세종대왕 위업선양과 그 계승 발전 그리고 한국학 진흥과 우리말과 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 5월 5일(어린이날) -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

작품제작의도 어린이날 답게 "어"를 작게 하고 "린"을 크게 하였으며, "이"의 "ㅇ"을 희망을 뜻하는 푸른색으로 하였다. "날"자에서는 어린이날에 맘껏 뛰어놀고 뜻을 펼치라는 의미로 "르"을 크고 길게 하여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표정을 담아냈다.

작가 소개 여태명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회장은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자예술학과 교수로서 캘리그래피에 표정을 담아내는 것을 늘 고민하고 있으며, 모든 캘리그래피 작업에서 힘찬 기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

3. 1월 11일 (사르르) - 눈이나 얼음 따위가 저절로 살살 녹는 모양

작품제작의도 아름다운 한 마디 말로 가슴이 녹듯, 달콤한 솜사탕이 입안 가득히 사라지듯, 우리 마음이 조용히 열리는 기쁨을 표현했다.

작가 소개 김상래 성도GL/성도솔루인의 대표이사는 기업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명에 행복한 CEO를 자처한다. 성도GL의 문화경영을 통해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4. 6월 10일(윙윙) - 조금 큰 벌레나 돌 따위가 매우 빠르고 세차게 잇달아 날아가는 모습

작품제작의도 1년 중에 두 번, 6월 10일(유열 Day), 10월 10일(열열 Day)에 모이곤 했던 팬클럽 정기 모임의 날을 표현했다.

작가 소개 가수 겸 뮤지컬 프로듀서인 유열씨는 진심과 동심, 열심히 라는 3심(心)으로 가족뮤지컬을 만들어 세상에 즐거운 영향을 나누기 위해 뮤지컬 제작에 전념하고 있다.

5. 8월 31일(아슬아슬) -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잇따라 드는 모양

작품제작의도 8월 31일이 생일인 아들의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모양을 표현했다.

작가 소개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오윤아 씨는 결식아동을 돕는 하트하트재단의 홍보대사 등으로도 활약하고 있다.